

외국인 전담 'BRAVO KOREA 고객센터' 오픈

전북은행, 총 17개국 언어로 외국인 고객 상담 및 특화 금융 서비스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외국인 고객 전담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 고객센터'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브라보 코리아 고객센터는 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 지역인 경기도의 거점 수원에 자리 잡았으며, 전용면적 204㎡(약 62평)의 대형 규모를 자랑한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공휴일을 제외 한 연중무휴에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확대 운영하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약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전북은행은 외국인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상담 및 설명력 제고를 위해 17개국(영어, 네덜란드,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크, 태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출신 전담 직원 약 40여 명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금융 상담과 대출, 예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사고 신고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인 고객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브라보 코리아 고객센터(1588-2266)로 하면 된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JB브라보 코리아 패키지'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상대적 금융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명실상부 외국인 대상 포용적 금융 확대의 선두 주자로서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외국인 대상 포용적 금융을 은행권 최초로 시작한 당시 이 사업의 담당 임원이었던 백종일 은행

장은 이날 고객센터 오픈식에서 고간의 소회를 밝히며 향후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의 진행 방향 및 포부를 밝혔다.

백 은행장은 "은행권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담당임원이었던 저로서는 더욱 뜻깊은 날"이라며 "특히 우리 전북은행의 외국인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최근 타 금융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단지 경쟁자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고객센터는 전북은행의 외국인 금융 서비스 체질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 안산, 동대문, 전주, 부산 등 5개 영업점 체널과 외국인 중심 '인적체널',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외국인 전용 APP과 체널 간 시너지 창출에 중추적인 포지셔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건중)는 지난 9일 관내 저소득층 아동 5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익산시청 아동복지계와 협업해 '다담씨앗통장 후원' 기탁식을 시행했다.

한전 익산지사 '다담씨앗통장 후원'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마련에 도움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건중)는 지난 9일 관내 저소득층 아동 5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익산시청 아동복지계와 협업해 '다담씨앗통장 후원' 기탁식을 시행했다.

다담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등에 소요 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기탁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의 금액으로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사회인으로 자립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한전 익산지사 사회봉사단은 보육시설 거주 저학년 아동 5인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8개월간 기부하게 되며, 연간 총 200만원의 후원액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된다.

한전 익산지사 김건중 지사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보육시설 거주 아동의 생활과 자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전 익산지사 또한 고민하겠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적 봉사 활동으로 ESG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천하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석 익산 부시장은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이번 기부로 조금이나마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담씨앗통장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 나은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aT, 추석맞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나눔' 실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10일 전라남도장흥에인 종합복지관(원장 강성취)과 나주백민원(원장 심상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aT는 매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아동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략 작물인 가루쌀로 만든 다양한 간식 제품을 함께 지원하며 가루쌀 제품 인지도 제고와 농가 상생에도 앞장섰다.

aT 기노선 부사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건강한 나눔을 지속 실천하며 ESG경영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중기청,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협의체 간담회' 개최

대학 국제교류센터, 중소기업 협·단체장 등 30여명 참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10일 전북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중기청과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대학 국제교류센터 관계자 및 중소기업 협·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사업설명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DB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중소기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 약 1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대학의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 취업매칭 지원을 위한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을 10월 말경 오픈

예정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협·단체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 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익산 부송4지구 A블록 민간참여 공공임대아파트 착공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 부송4지구 공동주택 부지에 추진하는 부송4지구 A블록 민간참여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이달 10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익산 부송4지구 A블록 민간참여 공공임대아파트는 익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300세대(전용면적 59㎡), 지상20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작년 12월 사업자(주)부강건설의3개사, 도내업



익산 부송동 A 공공주택 조감도

체 100%)을 선정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10일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

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익산 부송4지구 민간참여 공공임대아파트는 인근에 대형마트, 영화관, 익산시 체육센터, 공원, 학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여 탁월한 주거여건과 함께 입주인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품질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 추석 명절 맞이 배식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이정문 본부장)는 10일 점심 평화동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서 추석 명절 맞이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 배식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인 581명의 어르신들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3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특히, 공사에서 전달한 기부금과 쌀 30kg으로 준비한 보양식을 어르신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몸이 불편한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렸고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문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 세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당 영향을 최소화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